

대학생 소비자의 금융 이해력 및 금융소비자교육 요구도 분석

The Consumer Financial Quotient and Demand on Financial Consumer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전공

박사수료 김 미 리*

교 수 김 시 월**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onkuk Univ.

Doctoral Course : Kim, Mi-Lee

Professor : Kim, Si-Wuel

<Abstract>

The importance of finance in our society is truly absolute, and the of financial consumers who cope with the financial environment is becoming . Recently, many authorities in Korea to perceive the absence of serious economic or financial consumer education in order to find a fundamental solution for such a phenomenon, there is a growing need to introduce financial consumer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comprehension power of finance among consumers are college students in this society the importance of finance is becoming greater, and to a way promote financial consumer education by analyzing the demand level for

The main results obtained from the include the following.

First,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their average age was 21.8 years old, and on average they each had 4.16 credit cards. Most of them had no experience of receiving financial consumer education in their teenage years, and their interest level in investment was shown to be above average.

Second, as a result of reviewing their comprehension power of finance, it was shown to be 64.10 points on average their comprehension of the income area was the highest, their comprehension money management was shown to be the lowest.

Third,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perception level of the provision of financial consumer education, it was shown to be very low the perception level of on-line and off-line financial consumer education provided by the YMCA was shown to be the highest.

Fourth,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level financial consumer education, it was shown to be very high. For the level for institutions financial consumer education, financial institutions the highest. For the level for the method of financial consumer education, respondents chose practical experience the most and education books the least. For the intention of participating in financial consumer education, most respondents that they would participate, and most of them answered that the starting period should be the teenage years and childhood

Therefore, as a result, most university student's consumers have concerned on financial education and financial importance, it need to educate for the university student's consumers, and it need to develop technical tools and contents for financial education.

▲주요어(Key Words) : 금융이해력(financial quotient), 금융소비자교육(financial consumer education), 소비자교육(consumer education), 대학생 소비자(university student's consumer)

* 주 저 자 : 김미리 (E-mail : commete@konkuk.ac.kr)

** 교신저자 : 김시월 (E-mail : october@konkuk.ac.kr)

I. 서론

현대 사회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절대적이며 금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금융소비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사회이다(윤지애, 2005). 오늘날 소비자는 일반화된 신용카드사용, 다양한 금리, 파생금융 상품 확산 등 복잡한 금융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다양한 지불수단을 사용하거나, 신용정도에 따라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가 신용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금융소비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시대가 된 것을 의미한다(박현정, 2004).

2005년 4월부터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용정보법령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신용불량 정보를 신용거래정보로 통합하여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기 전인 2004년 12월 말 기준으로 20대 신용불량자가 약 63만 명으로 전체 신용불량자 중 약 17.5%에 해당된다(전국은행연합회, 2004). 실제 금융감독원(2003) 연구에서는 카드가 발급되는 순간부터 능력에 관계없이 수백 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어 신용능력이 취약한 10대와 20대의 신용불량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신용사회를 맞이할 준비는 부족한 상태에서 잘못된 신용이용은 개인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교육이 요구된다(김시월 · 조향숙, 2010 재인용). 이러한 수치는 20대가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금융문맹'이란 문자를 읽고 쓰지 못하는 것을 문맹이라고 하듯이 재화의 소중함과 관리 방식을 몰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실제로 국민은행 부설 경제경영연구소에서 지난 2002년 9월 한국 · 미국 · 일본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비 · 금융행태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의 약 28%가 가정이나 학교 어디에서도 금융소비자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으며, 약 36%는 학교에서 소비생활이나 금융이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대부분 저축의 필요성이나 올바른 소비생활 요령과 같은 기초 수준의 항목에 집중되었고, 금융투자나 재무설계와 같은 실용적 지식 항목에 대해서 교육 받은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은행연구소, 2002).

이러한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새로운 형태의 문맹으로 금융소비자교육 부재의 상황을 대변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금융의 비중이 커지면서 금융소비자교육의 부재로

돈의 소중함과 관리방식을 모르는 금융문맹이라는 신종 문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 과거의 문맹만큼이나 금융에 대한 무지는 생활에 불편을 주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도규태, 2004). 금융문맹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빈부격차 심화, 저축률 저하와 그에 따른 성장기반의 약화, 신용불량자 급증 및 금융 기관의 부실화 등과 같은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금융문맹의 심각성은 결코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카드빚과 같이 우리 가정을 와해시키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박은주, 2004).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신용 및 금융소비자교육 선진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 경제 불황과 함께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소비자교육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정부부처, 기업, 금융기관, 여러 민간 기구, 학교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현상을 분석해 보면, 신용과 관련된 교육의 시기는 어릴수록 좋다는 것,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하게 연계하여 수행할 것, 그리고 수혜자 입장에서 적절한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김시월, 2007).

이에 우리나라 역시 최근 각계에서 경제교육 혹은 금융소비자교육의 부재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비자교육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이지영, 2005). 신용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신용불량자나 가계 파산자들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이에 따른 신용과 금융관련 소비자교육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으나 교과서 등에만 의존하는 금융소비자교육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교과서는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재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시월, 2007).

삼성카드사는 2002년 초부터 YMCA와 한국 소비자 연맹 등과 함께 전국의 중고교생과 군인 등에게 신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그 대상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대학생들에게도 확대해 운영하였다. 또, 삼성카드와 성균관대는 공동으로 '대학생 신용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여 2004년 10월부터 강좌를 개설하였다. 또한, 예비 경제인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와 경영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제유니버시아드 대회가 2003년 6월부터 시작되었다. 이 외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과 금융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참신한 금융논문을 공모하는 '대학(원)생 금융논문 공모'를 2006년부터 주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생 대상의 금융소비자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 소비자는 직장

인이 아닌 학생의 신분이지만 성인의 신분으로 사회생활에 첫 발을 디딘 소비자로서 초·중·고등학생과 같은 학생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가져야 하는 하나의 소비자로서 이러한 금융소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하나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스스로의 직업을 통해 독립적인 소득창출과 지출을 하여야 하는 소비자로서 그러한 활동과 상황을 준비하고 대비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대학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금융소비자교육의 대부분의 대상은 청소년이며, 대학생 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뚜렷한 금융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이 거의 없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금융소비자교육의 현황이나 교육 요구도를 분석한 연구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한 경제교육에 관한 내용분석 및 개선방안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대상 역시 초·중·고등학생 및 부모 중심으로 금융소비자교육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대학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소비자교육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교육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 소비자들의 금융 이해력 정도를 측정하고, 금융소비자교육의 요구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대학생 금융소비자교육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금융소비자교육의 개념

국내에서는 아직 금융소비자교육의 내용이나 범위에 대해 뚜렷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경제교육, 금융교육, 소비자교육 등의 개념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경제교육은 다소 학문적인 성향이 강하며,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원칙이나 경제시스템 등의 이해를 통해서 '경제 이해력(Economic Literacy)'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다. 금융교육은 신용교육, 금융이해력교육, 개인금융교육, 화폐관리교육, 금융·자산관리교육, 투자교육, 소비·저축교육 등 여러 가지 용어들과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 모두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의 함의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윤지애, 2005). '금융이해력'란 금융과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활용능력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Katy Jacob 외는 금융이해력을 금융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최유경, 2005). 외와

같이 금융교육은 경제 주체 중 하나인 소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식 및 기능을 제공하여 소비자로서 하여금 선택과 재정적인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교육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교육은 거시적·미시적 경제 환경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 및 활동과 경험들을 구성하여 일생동안 경제자원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지영, 2005)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금융교육(Personal Financial Education)을 금융소비자교육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여 '금융소비자교육'이라고 명명하였다.

2. 금융소비자교육의 현황

2.1 국내 금융소비자교육의 현황

최근 우리 정부는 다양한 관점에서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청소년 등 국민들의 경제이해도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국민경제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금융 및 신용사회 구축에 관한 교육에 주력하기 시작했다(금융감독원, 2002). 2004년에는 민간 경제단체, 한국은행, 정부부처 등 경제교육 관련 14개 주요기관(재정경제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한국은행, KDI, 금융감독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연합회, 증권협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JA Korea 등 14개 기관의 국장·임원급으로 구성)들과 '민·관 경제교육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다(윤지애, 2005).

금융감독원은 금융 감독의 3대 설립목적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2002년 '소비자교육실'을 신설하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004년 1월에는 금융내용 전반을 담은 기본 텍스트 「금융이야기」시리즈를 발간하였는데, 이 시리즈는 명확한 컨셉을 기초로 체계적인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교육용 기본 텍스트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국증권업협회는 투자자들과 일반국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증권 강좌 및 세미나, 언론매체 홍보 등을 통해 증권시장 제도 설명 및 투자 안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sda.or.kr/>)를 통해 '만화로 보는 증권시장' '증권시장의 이해' 등의 교육 관련 참고자료를 제공하여 증권시장에 대한 소개, 투자방법 안내, 기초적인 증권분석요령 등을 전달하고 있다.

금융기관 중 최초로 금융계몽 운동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금융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은 KB국민은행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금융교육을 전담하는 TFT를 구성하고 『스무살, 이제 돈과 친해질 나이(2003. 02)』, 『돈은 고마운 친구

(2003. 07)』, 『돈을 알자! 경제를 알자!(2003. 11)』 등의 금융교육 교재를 발간하여 전국 학교 및 공공도서관 등에 무료 배포하였다. 또한, 『20대의 소비행태-현명한가?』, 『금융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등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밖에도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 순회강연회, KB어린이 금융캠프 등의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함께 초등학교 및 부모대상의 금융교육 웹사이트 '키드뱅크(Kid Bank)'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중 YMCA는 국민의 경제의식과 신용문화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해 '건강한 신용사회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2002년 7월 YMCA내에 '신용사회운동 사무국'(<http://www.ycredit.org>)을 설치하였다. '청소년 신용관리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각 지역 YMCA와 연계하여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용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삼성카드)의 지원 및 기부금으로 교사들을 위한 청소년 신용교육교재인 '신용이 머니(money)?!'를 2002년 10월에 발간하였고, 비디오 영상물 및 brochure 등을 제작하여 전국 4,700여개 중·고등학교에 배포하였다. 한편, 청소년의 올바른 소비문화 홍보를 위해 '청소년 거리 문화축제'행사를 전국 각 YMCA 지역본부별로 개최하여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와 함께 경제교육가정으로서 다양한 소비체험 프로그램 및 신용활용도 점검 행사도 실시하고 있다(금융감독원, 2002).

대학생들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인 연세 SIFE(Students In Free Enterprise)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금융지식, 경제지식이 학교교육만으로는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5년 6월과 7월동안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Financial Literacy 프로젝트를 'Credit Your Life'라는 프로젝트명 아래 실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신용'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신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용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국내 금융소비자교육의 현황은 다양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내용 측면과 방법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2.2 국외 금융소비자교육의 현황

우선, 미국은 1990년대 초 청소년 금융문맹과 이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금융문맹의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필요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비영리 민간교육기관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994년 경제교육을 학교교육의 9대 핵심과목 중 하나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2000년을 향한 미국교육법』을 제정하고 경제학 교과내용의 전국 표준 권고안을 마련하였다(이지영, 2005). 특히, 학교 중심의 금융소비자교육 프로그램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부가 Jump\$Start 등 금융소비자

교육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학교 대상의 금융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집중하였다. 이후 1999년 『조기금융교육법안(Youth financial Education Act)』, 2002년 『NCLB(No Child Left Behind) Act』, 2003년 『TANF Financial Education Promotion Act』 등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 금융소비자교육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비영리단체가 금융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로는 NEFE(전국금융교육기금), NCEE(전국경제교육연합회), 점프스타트(Jump\$Start) 등이 있으며, 이를 포함해 140여 개가 넘는 비영리 단체가 있다. 이 단체들은 서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금융소비자교육 캠페인 전개, 교재 개발, 교사 및 학생 연수 등의 다양한 금융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금융감독원, 2002).

영국의 금융소비자교육은 1980년대 중반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일부 금융기관들이 우수인재 채용과 지역 밀착화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고등학교 대상으로 금융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 데서 출발했다. 이후 1990년대 초반의 경제 불황과 개인 파산의 급증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정부 및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민간연계의 금융소비자교육 체계가 본격화되었다(박철, 2003). 영국의 금융소비자교육의 강화는 1999년 5월에 제정, 공포된 『금융소비자교육에 관한 지침』의 영향이 컸다. 이 지침은 정부 내 관련부처는 물론 금융기관과 비영리 민간기구(NGO) 등 각계각층에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되었다. 영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금융소비자교육은 금융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서비스청(Financial Service Authority: FSA)이 중심이 되어 실시되고 있다. 금융서비스청의 설립 목적과 책임을 명시한 『금융서비스시장법(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은 금융서비스청의 4대 목적 중 하나로 '금융시스템에 관한 공중의 이해 제고(Public Awareness of Financial System)'를 내세우고 있다. 금융지식 기초 마련을 위한 FSA의 주요 추진 사업은 16-2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금융교육, 성인을 위한 직장 내 금융교육,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금융환경이 될 수 있는 가정 내 금융교육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부모에 대한 금융교육, 미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은퇴계획, 부채이용과 관련된 올바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소비자 신용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재무계획 수립에 대한 상담 및 필요한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소개 등 소비자 대상 재무상담의 7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백은영, 2005).

영국 청소년 금융소비자교육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민간단체로는 '금융교육연합회(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 PFEG)'를 들 수 있다. PFEG는 1996년 금융소비자교육을 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편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구로서 소비자단체,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PFEG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금융관련 과목을 정규교과 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교육부에 요구해왔다. 이 같은 PFEG의 노력은 2000년 영국의 교육부가 '개인, 사회, 건강교육(PSHE: 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 과정에 금융관련 내용을 포함되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의 금융소비자교육이 대두하기 시작한 배경은 경제 침체를 경험하면서 건전한 경제시민 육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다(백은영, 2005). 일본은 사회 전체적으로 '금전교육(金錢の教育)'이라는 단어가 일반화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밀접한 교류를 맺고 금융소비자교육을 추진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일본의 금융소비자교육은 1997년 제정된 『금융감독청설치법』이 2000년 『금융청설치법』으로 개정되면서 금융산업과 금융정책을 일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금융청의 주도로 실시되고 있다. 『금융청설치법』제 4조에는 금융기능의 안정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금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업무로 금융에 관한 지식을 보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에 관한 지식의 보급 업무는 '금융청 총무기획국 정책과'에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 중 금융홍보중앙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기관은 금융단체, 언론사, 소비자단체 일본은행 부총재 등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초등학교 대상 교육용 비디오 '100만円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등을 제작, 보급하여 어렸을 때부터 신용과 금융의 중요함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에는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연령층별 학습기준 초안도 발표하였다(김정호, 2003). 즉, 국외 금융소비자교육의 현황은 각 국가별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 및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 국내 및 국외 금융소비자교육의 비교

우리나라 금융소비자교육의 문제점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사회 전체적인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금융소비자교육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금융기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으며, 비영리단체가 금융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선진 금융기관들은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으로 금융소비자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선진국의 금융기관들은 자사의 홈페이지에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된 컨텐츠를 게임, 만화, 동영상, 동화 등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쉽게 금융소비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진 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 국내 금융기관들의 금융소비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매우 미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생활에서 차지하는 경제·금융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제교과서의 대부분은 딱딱한 원리설명에만 치우치고 있다. 이처럼 이론 위주의 내용들로만 교과과정이 구성되다 보니 신용카드, 주식투자, 세금, 부동산 등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나오면 바로 부딪치게 되는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의 배울 기회가 없다. 선진국의 금융소비자교육과 비교했을 때, 신용관리의 중요성, 투자에 따른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 미래의 자금흐름 소요에 따른 재무 설계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항목에 있어서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박은주, 2004).

우리나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며, 선진국의 금융소비자교육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4 선행연구 고찰

최은진(2004)은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 내용의 구성과 분석·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으며, 학교 금융소비자교육 내용체계로 기본 경제원리, 금융환경, 개인재무관리, 금융소비자의 역할 등 4개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김지검(2003)은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6차와 7차 교육과정 경제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고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경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중심으로 경제교육에 대한 목표와 내용을 분석하고, 경제 교육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송장환(2003)은 학교 신용교육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고등학교 사회, 경제교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에서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신용불량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신용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으로 사회, 경제교과서를 중심으로 그 현황 및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박은주(2004)는 청소년 금융교육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금융교육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 금융교육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유형을 찾으려 하며, 효과적인 청소년 금융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현일(2004)은 중등학교 경제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여러 과목에 분산되어 있는 경제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경제를 전공한 교사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이론중심에서 실생활 경제중심으로의 개편을 요구하고, 다양한 교수 학습 개선 프로그램과 보조학습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 외 이미경(2004)은 평생교육으로서의 경제교육과 대학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교육의 위상정립과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도규태(2004)는 금융개방화 시대를 대비한 한국경제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과 사회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과 금융교육 방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성영애(1988)는 금융관련 영역이 6개 포함된 소비자교육 내용을 17개 주제로 구성하여 주부를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의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요구도 순위는 주택, 가계경제계획 및 실행방법, 저축과 투자, 조세와 지역사회자원, 보험, 신용 순으로 나타났다. 홍향숙·이기춘(1997)이 기혼여성의 재무관리교육에 대한 요구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적 특성(연령, 직업, 교육수준, 재정적 요구)과 가족적 특성(남편의 직업, 가족생활주기, 월평균 가계소득, 자산)에 따라 분석하였다.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중 김은정(2009)의 청소년 소비자의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의 소비생활태도와 용돈의 규모가 중간이며 용돈받는 방법을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는 경우 금융이해력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학습욕구가 강한 학생인 경우 금융이해력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돈 관련 학습 방법이 학교와 가정보다는 언론매체를 통해 학습한 청소년이 금융이해력이 높게 나타나 언론매체가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경제교육 및 금융소비자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과 교과와 경제교육에 관한 내용분석 및 개선방안과 교육 내용 요구도 중심이 대부분이며, 대상으로는 초·중·고등학생인 청소년과 부모 중심이 대부분이었다. 금융소비자교육의 필요성과 방안에 관한 연구는 최근 소수만 진행되었을 뿐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대학생소비자의 금융이해력은 어느 정도인가?
- <연구문제 2> 대학생소비자의 금융소비자교육 실행인지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대학생들이 원하는 금융소비자교육 요구도(교육 주제, 교육 내용, 교육 방법)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금융이해력, 금융소비자교육 내용 요구도에 미치는 관련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학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2006년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친 후 설문지를 수정, 보완 후 2006년 10월 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서울 및 충주 소재 K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지를 통해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680부를 배포하였고, 그 결과 655부가 회수되었으나, 부실 기재한 것, 응답 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 등 신뢰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총 625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척도구성 및 내용

본 조사의 설문지 척도구성은 우선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변수로 나이, 성별, 전공, 신용카드 개수, 아르바이트 유무, 용돈 중 아르바이트의 비중, 용돈받는 방법, 청소년기에 금융소비자교육 받은 정도와 교육기관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재테크 관심도는 5문항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금융소비자교육 실행인지도는 현재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인지도로 '알고 있다'를 1점, '모르고 있다'를 0점으로 하여 온라인 금융소비자교육 9문항, 오프라인 금융소비자교육 5문항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금융소비자교육 요구도는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참여의사, 교육시기로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금융이해력은 '금융'이라는 특정 분야의 지식과 이해력의 수준 정도를 말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2003년 (사)청소년금융교육협회가 주관한 고등학교 학생 금융이해력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사용하였다(2000년 미국에서 실시한 Jump\$tart의 청소년 대상 금융이해력 측정을 위한 설문내용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이 설문지는 소득이해영역 7문항, 화폐관리 이해영역 4문항, 저축과 투자의 이해영역 8문항, 지출과 부채의 이해영역 11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00만점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학생소비자 금융이해력 수준이 2006년도에 실시한 것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할 당시 대학생소비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금융이해력이 없었으며, 그 이후 2010년에 대학생의 금융이해력이 조사되어 결과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조사할 당시의 금융소비자교육 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해 금융소비자교육 내용 요구도에 금융이해력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 발표된 2010년 금융이해력이 아닌 2006년 조사된 금융이해력을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12.0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청소년기 금융소비자교육 실태, 금융이해력, 금융소비자교육 요구도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사용하였다.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금융이해력, 금융소비자교육 실행인지도, 금융소비자교육 내용 요구도를 알기 위하여 t-test, 일원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금융소비자교육 요구도를 알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재테크 관심도와 금융이해력, 금융소비자교육 실행인지도, 금융소비자교육 내용 요구도의 관계를 알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이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재테크 관심도는 다음 <표 1>과 같다.

2. 대학생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2.1 대학생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수준

조사대상자의 금융이해력은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금융이해력을 측정된 결과 평균 64.10점으로 소득 이해영역, 화폐관리 이해영역, 저축과 투자 이해영역, 지출과 부채의 이해영역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소득 이해영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화폐관리 이해영역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재테크 관심도

변 수	집 단	빈도(%)	평 균
성 별	여 자	320(51.3)	
	남 자	304(48.7)	
연 령	20세 미만	137(22.0)	21.8(세)
	20세~22세 이하	251(40.3)	
	23세 이상	235(37.7)	
전 공	인문·사회계열	312(50.6)	
	이공·자연·예술 계열	605(49.4)	
신용카드 개수	0개	146(23.4)	1.5(개)
	1개	195(31.3)	
	2개	180(28.9)	
	3개 이상	102(16.4)	
용돈받는 방법	받지 않는다	83(13.3)	
	정기적으로 받는다	338(54.3)	
	필요할 때마다 받는다	201(32.3)	
아르바이트 경험	있다	538(86.5)	
	없다	84(13.5)	
용돈 중 아르바이트비의 비중(%)	0%	119(22.4)	43.9
	1~50%이하	228(42.9)	
	51% 이상	185(34.8)	
금융소비자교육 경험유무	없다	577(92.3)	2.1
	있다	48(7.7)	
교육경험장소	소비자단체	6(10.7)	
	정부 및 공공기관	41(73.2)	
	언론/금융기관	9(16.1)	
재테크 관심도	적 금		4.1
	주 식		3.7
	부동산		3.8
	펀 드		3.9
	보 험		3.6
	전 체		3.8

<표 2> 대학생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문항	대학생	청소년*	차이
소득 이해영역(2, 5, 16, 18, 26, 28, 29번)	69.8	48.6	+21.1
화폐관리 이해영역(7, 22, 25, 30번)	55.2	39.2	+16.0
저축과 투자 이해영역(3, 9, 10, 13, 14, 15, 17, 19번)	63.5	46.6	+16.8
지출과 부채의 이해영역(1, 4, 6, 8, 11, 12, 20, 21, 23, 24, 27번)	63.8	44.0	+24.8
금융이해력	64.1	45.2	+18.9

*출처: 2003년 금융감독원, 측정결과, 100점 만점 기준

<표 3>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금융이해력 차이

변수	집단	소득이해 영역			화폐관리 영역			저축과 투자 이해영역			지출과 부채 이해영역			금융이해력		
		M	D ^a	t값/ F비	M	D ^a	t값/ F비	M	D ^a	t값/ F비	M	D ^a	t값/ F비	M	D ^a	t값/ F비
성별	여자	69.8		.053	54.6		-.622	63.2		-.903	62.6		-1.208	63.5		-.936
	남자	69.8			55.9			64.4			64.3			64.6		
나이	20세 미만	66.6	b		50.2	b		60.4	b		61.5	b		60.9	b	
	20세~22세 이하	69.0	ab	4.761**	53.0	b	8.399***	63.0	ab	4.220*	62.1	b	6.924**	62.8	b	10.502***
	23세 이상	72.8	a		60.5	a		65.8	b		67.1	a		67.3	a	
전공	인문·사회계열	71.1		1.278	56.6		1.092	64.9		1.818	64.9		1.502	65.3		1.956
	이공·자연·예술계열	69.1			54.3			62.3			62.8			63.1		
신용카드 개수	0개	66.9	a		50.8	a		61.5			61.8			61.5	a	
	1개	71.8	ab	3.229*	57.3	b	2.790*	63.7		1.046	65.1		1.154	65.4	b	3.012*
	2개	68.4	bc		54.1	ab		63.6			63.8			63.6	ab	
	3개 이상	73.4	c		59.5	b		65.5			64.5			66.3	b	
용돈받는 방법	받지않는다	70.4			57.2	b		64.2			62.6			64.4		
	정기적으로받는다	69.8		.034	57.4	b	4.421*	64.3		.334	63.8		.175	64.6		.700
	필요할때마다 받는다	69.8			50.7	a		63.1			63.3			63.1		
아르바이트 유무	있다	70.0		.492	55.9		1.636	64.4		1.823	63.4		-.418	64.4		1.191
	없다	68.9			51.1			60.7			64.2			62.4		
아르바이트 비중	0%	68.7			58.6			65.7			64.3			65.0		
	1~50%이하	70.7		.395	56.0		1.134	63.4		1.877	65.0		.484	64.8		.816
	51% 이상	69.8			53.9			61.6			63.4			63.2		
용돈받는 방법	받지않는다	70.4			57.2	b		64.2			62.6			64.4		
	정기적으로받는다	69.8		.034	57.4	b	4.421*	64.3		.334	63.8		.175	64.6		.700
	필요할때마다 받는다	69.8			50.7	a		63.1			63.3			63.1		

*p<.05, **p<.01, ***p<.001

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2.2 변수에 따른 금융이해력 차이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금융이해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화폐관리영역이 나이, 신용카드 개수, 용돈 받는 방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나이가 높은 그룹일 경우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독립할

나이가 되어갈수록 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금융에 관한 경험도 많아지는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용돈 받는 방법이 정기적일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 화폐관리 영역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기적으로 받을 경우에는 정해진 용돈의 범위 안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 스스로 용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화폐 관리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3. 대학생 소비자의 금융소비자교육 실행인지도

금융소비자교육 실행인지도는 현재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

는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전체 금융소비자교육 실행인지도가 14점 만점에 2.34점으로 매우 낮은 실행인지를 보였다(<표 4> 참조). 온라인 금융소비자교육

<표 4> 조사대상자의 금융소비자교육 실행인지도

문항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평균	
온라인 금융소비자 교육	금융감독원-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금융교육	147(23.9)	467(76.1)	.24	1.54
	재정경제부-어린이 경제 홈페이지	141(23.0)	473(77.0)	.23	
	매일경제-경제박사 코너	118(19.2)	495(80.8)	.19	
	한국은행-어린이·청소년 경제교실	88(14.3)	526(85.7)	.14	
	KB국민은행-카드뱅크	101(16.5)	511(83.5)	.17	
	한국개발연구원-Click 경제교육	56(9.1)	557(90.9)	.09	
	비자코리아-마이머니스킬즈	39(6.4)	574(93.6)	.06	
	서울YMCA-청소년 경제학교	178(29.1)	434(70.9)	.29	
	대한상공회의소-HI경제	77(12.7)	528(87.3)	.13	
오프라인 금융소비자 교육	한국은행-청소년경제캠프	126(20.6)	486(79.4)	.21	.81
	YMCA-청소년경제리더쉽 캠프	177(29.0)	434(71.0)	.29	
	KB국민은행-금융교육순회강연회	85(13.8)	529(86.2)	.14	
	삼성카드- 학교방문신용교육	76(12.4)	535(87.6)	.12	
	연세SIFE-Financial Literacy 프로젝트	32(5.2)	580(94.8)	.05	
전체				2.34	

<표 5>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대학생 소비자의 금융소비자교육 실행인지도

		온라인 금융소비자교육 실행인지도			오프라인금융소비자교육 실행인지도			금융소비자교육 실행인지도		
		M	D ^a	t값/F비	M	D ^a	t값/F비	M	D ^a	t값/F비
성별	여자	1.4		.547	.8		-.595	2.3		-.203
	남자	1.5			.7			2.3		
나이	20세 미만	1.1	a	3.647*	.8		.138	1.9		1.751
	20세~22세 이하	1.5	b		.8			2.4		
	23세 이상	1.7	b		.8			2.5		
전공	인문·사회계열	1.7		2.174*	.9		2.037*	2.6		2.317*
	이공·자연·예술 계열	1.3			.7			2.0		
신용카드 개수	0개	1.5	b	.298	.9		1.568	2.4		.391
	1개	1.5	ab		.7			2.3		
	2개	1.6	ab		.7			2.3		
	3개 이상	1.4	a		.6			2.1		
용돈받는 방법	받지않는다	1.7		1.899	.8		1.031	2.5		1.705
	정기적으로 받는다	1.6			.8			2.4		
	필요할 때마다 받는다	1.3			.7			2.0		
아르바이트 유무	있다	1.5		-.974	.7		1.051	2.3		.365
	없다	1.3			.9			2.2		
아르바이트 비중	0%	1.24	b	2.585	.52	a	8.579***	1.76	b	4.971**
	1~50%이하	1.74	a		1.01	b		2.75	a	
	51% 이상	1.60	ab		.72	a		2.31	ab	

실행인지도는 9점 만점에 1.54점, 오프라인 금융소비자교육 실행인지도는 5점 만점에 .81점으로 온·오프라인 금융소비자교육 모두 매우 낮은 실행인지도를 보였고, 오프라인 금융소비자교육 실행인지도보다는 온라인 금융소비자교육 실행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 연구가 실시된 2006년과 현재의 금융소비자교육의 실행에 있어 아직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학생 금융소비자교육이 현재도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 현재에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소비자교육보다는 청소년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대부분이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소비자교육이 많으며, 청소년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접근의 용이하지 않으며, 교육내용이 부족하거나 업데이트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있다. 연구의 시점이 5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많은 차이가 없는 현황을 통해 볼 때 금융소비자교육 실행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금융소비자교육 실행인지도는 <표 5>와 같다. 나이가 많은 경우 실행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계열인 경우 더 높은 실행인지를 나타냈다. 아르바이트 비중에서는 오프라인 금융소비자교육 실행인지도와 전체 금융소비자교육 실행인지도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대학생 소비자의 금융소비자교육 요구도

4.1 대학생 소비자의 금융소비자교육 내용 및 관련 내용 요구도

금융소비자교육 내용 10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문항 1,2를 요인 1로, 문항 3,4를 요인 2로, 문항 5,6,7,8를 요인 3으로, 문항 9,10을 요인 4로 묶을 수 있었으며, 요인 1의 평균이 4.80으로 가장 높았고, 요인 2의 평균이 3.5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요인들의 공통되는 것을 찾아 요인 1을 저축·신용관리, 요인 2를 보증·신용카드, 요인 3을 금융·투자 지식, 요인 4를 금융기관 및 세제로 명명하였다. 전체적인 금융소비자교육 내용 요구도는 5점 만점에 4.21점으로 매우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는데 내용별로 살펴보면 신용관리가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증이 가장 낮은 요구도를 보였다. 조사대상자가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않았고, 큰 돈이 필요할 경우가 드문 시기이기 때문에 보증과 신용카드의 요구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소비자의 금융소비자교육 관련 내용 요구도는 <표 7>과 같다. 가장 먼저 금융소비자교육기관의 요구도를 살펴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이 43.4%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이는 앞으로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교육방법의 요구도로는 현장실습이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였으며, 책(문서)가 가장 낮은 요구도를 보였다. 금융소비자교육참여의사를 살펴보면, '무료만 참여하겠다'가 75.2%로 거의 대부분이 응답하였다. 금융소비자교육 시작 시기를 살펴보면, '청소년기'와 '아동기'가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유아기'와 '성인기'는 매우 낮은 비율을 보여 학창시절에 금융소비자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대부분이 응답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주체적으로 무료로 금융소비자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6> 금융소비자교육 내용 요구도와 요인분석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Cronbach's α	평균
1.저축의 필요성	.811	-.058	.150	.051	.518	4.7
2.신용관리	.798	.115	.143	.035		4.8
3.신용카드	.079	.896	.061	-.005	.724	3.9
4.보증	-.021	.902	.013	.039		3.1
5.금융과 관련된 지식	.229	-.047	.737	.022	.761	4.5
6.투자에 대한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	.035	.097	.810	.040		4.3
7.보험	.272	.053	.635	-.014		4.2
8.금융상품, 투자 상품의 종류나 특징, 역할	-.031	.001	.833	.102		4.1
9.다양한 금융기관의 종류, 기능, 역할, 차이점	.044	.028	.029	.836	.559	4.1
10.세금 및 공제	.035	.004	.072	.827		4.5
고유치	2.722	1.617	1.350	1.142		
요인적재값	27.219	16.170	13.497	11.421		
누적적재값	27.219	43.389	56.886	68.307		
평균	4.8	3.5	4.2	4.3		4.2

<표 7> 조사대상자의 금융소비자교육 요구도

변수	집단	빈도(%)	변수	집단	빈도(%)
교육기관	소비자단체	127(20.5)	교육방법	영상매체	160(26.4)
	정부 및 공공기관	271(43.4)		현장실습	258(42.6)
	언론/금융기관	222(35.8)		책(문서)	17(2.8)
		특별강좌 및 강의		171(28.2)	
교육 참여의사	유료라도 참여하겠다	138(22.8)	교육시작 시기	유아기	19(3.1)
	무료만 참여하겠다	456(75.2)		아동기	249(41.2)
	참여하지 않겠다	12(2.0)		청소년기	313(51.8)
		성인기		23(3.8)	

<표 8> 관련변수에 따른 금융소비자교육 내용 요구도

		저축·신용관리			보통·신용카드			금융·투자 지식			금융기관 및 세계		
		M	Da	t값/F비	M	Da	t값/F비	M	Da	t값/F비	M	Da	t값/F비
성 별	여 자	4.8			3.5			4.2			4.3		
	남 자	4.7		.947	3.5		.493	4.3		-1.715	4.3		-788
나 이	20세 미만	4.8			3.4			4.2	b		4.4		
	20세~22세 이하	4.8		.006	3.4		1.997	4.2	b	3.797*	4.3		1.476
	23세 이상	4.8			3.6			4.4	a		4.3		
전 공	인문·사회계열	4.8			3.6			4.3			4.3		
	이공·자연·예술 계열	4.7		1.214	3.3		3.463**	4.2		2.155*	4.3		.720
신용카드 개수	0개	4.7			3.3			4.2			4.2		
	1개	4.7			3.5			4.2			4.4		
	2개	4.8		1.214	3.5		2.229	4.2		.748	4.3		1.808
	3개 이상	4.7			3.6			4.3			4.4		
용돈받는 방법	받지않는다	4.8			3.6			4.2			4.4		
	정기적으로 받는다	4.8		.234	3.4		.845	4.3		.648	4.3		.755
	필요할 때마다 받는다	4.8			3.5			4.2			4.3		
아르바이트 유무	있다	4.8			3.5			4.3			4.3		
	없다	4.8		-216	3.7		-1.672	4.2		.941	4.2		1.368
아르바이트비 비중	0%	4.7	b		3.5			4.3			4.4		
	1~50%이하	4.8	b	4.105*	3.5		.151	4.3		.944	4.3		.841
	51% 이상	4.9	a		3.5			4.2			4.4		

4.2 관련변수에 따른 금융소비자교육 내용 요구도

관련변수에 따른 금융소비자교육 내용 요구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나이가 23세 이상인 경우 금융·투자 지식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나이가 높아짐에 따라 미래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금융과 투자를 통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공에 따라서는 보통·신용카드와 금융·투자지식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모두 인문·사회계열인 경우가 더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용돈 중 아르바이트 비중에 따라서 저축·신용관리의 요구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51%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 스스로 충당해야 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생각된다.

관련변수에 따른 금융소비자교육 기관 요구관련변수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표 작성에서 생략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인 결과, 모든 변수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요구도가 다른 기관에 비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의 시행이 좀 더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5. 대학생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금융소비자교육 내용 요구도에 미치는 관련변수의 영향력

*기준변수(Code=0)는 '성별: 여자, 전공그룹: 인문·사회계열, 용돈받는방법: 받지 않는다, 아르바이트유무: 있다'이다.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관련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¹⁾은 <표 9>와 같다. 금융이해력의 모든 영역에 나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해영역, 화폐관리이해영역, 지출과 부채이해영역, 저축과 투자 이해영역 그리고 전체금융이해력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어려서부터 금융과 관련된 이해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매체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교육 내용 영역별에 미치는 관련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표 10>과 같다. 저축·신용관리를 살펴보면, 보험관심, 아르바이트비의 비중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보험관심과 아르바이트비의 비중이 높을수록 저축·신용관리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보증·신용카드를 살펴보면 펀드관심, 나이, 전공그룹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펀드관심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은 수록 그리고 인문·사회계열이 자연·예술계열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 지식을 살펴보면 보험관심, 펀드관심, 소득이해영역, 신용카드개수, 주식 관심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주식 관심을 제외하고 모두 정의 영향력을 보였는데 주식에 대한 관심이 적을수록 금융·투자 지식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식에 대한 관심이 적을수록 주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금융·투자에 대한 지식을 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기관 및 세계에서는 적금관심, 펀드관심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적금과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금융기관 및 세계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금과 펀드를 이용하는 것이 금융기관과 관련이 되어있고 투자에 따른 소득에 대한 세계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 교육내용 요구도에서는 펀드관심, 보험관심, 전공그룹, 소득이해영역, 신용카드 개수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이 중 신용카드의 개수가 많을수록 금융과 관련된 소비자교육의 내용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 대학생 소비자의 향후 사회진출로 인한 소득 발생 후 관련된 생활과 관련된 금융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을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생소비자의 특성과 관심에 따라 금융소비자교육의 내용 요구도가 다르게 나타나 개별적인 맞춤 교육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 9>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관련변수들의 영향력

설명변인	종속변인	소득이해영역	화폐관리 이해영역	지출과부채 이해영역	저축과투자 이해영역	금융이해력
		β	β	β	β	β
나이		.144**	.189***	.173**	.123*	.210***
성별: 남자		-.085	-.089	-.060	-.009	-.078
전공그룹: 인문·사회계열		-.027	-.065	-.061	-.076	-.077
사회경제적변수	신용카드개수	.022	.064	.036	.073	.063
	아르바이트비의 비중	-.001	-.023	.020	-.088	-.027
	용돈받는방법:					
	정기적으로 받는다	.044	.069	.090	-.002	.070
	필요할때마다 받는다	.037	-.053	.027	-.008	.008
	아르바이트유무: 없다	.010	-.027	.022	-.016	-.044
재테크 관심도	적금관심	-.034	-.054	-.051	-.052	-.029
	주식관심	-.010	-.010	.010	-.046	-.043
	펀드관심	.078	-.030	.020	-.026	.013
	보험관심	-.068	-.030		-.086	-.050
수정된 R ²		.011	.040	.017	.031	.045
상수		3.928***	1.772	3.561***	5.576***	5.197***
F비		1.437	2.623**	4.661	2.253**	2.844**

1) 다중공선성 진단한 결과 부동산관심이 변수에서 제외되었음.
2) 다중공선성 진단한 결과 부동산관심이 변수에서 제외됨

<표 10> 금융소비자교육 내용 영역별에 미치는 관련변수들의 영향력

설명변인	종속변인	저축·신용관리	보증·신용카드	금융·투자지식	금융기관 및 세계	전체교육내용 요구도
		β	β	β	β	β
사회 경제적 변수	나이	.007	.149**	-.004	-.069	.089
	성별: 남자	-.017	-.052	.060	.072	.034
	전공그룹: 이공·자연· 예술 계열	-.038	-.109*	-.087	-.032	-.120**
	신용카드개수	.014	.040	.093*	.081	.115**
	아르바이트비의 비중	.143*	-.024	-.009	-.082	-.016
	용돈받는방법: 정기적으로 받는다	.082	-.132	.082	-.089	-.026
	필요할때마다 받는다	.026	-.052	.078	-.022	.038
	아르바이트유무: 없다	-.016	.106	.036	.023	.078
	재테크 관심도	적금관심	.030	-.007	.007	.185***
주식관심		-.028	-.032	-.081*	.178**	-.031
펀드관심		.014	.191***	.127**	-.002	.191***
보험관심		.184***	-.065	.296***	.026	.190***
금융 이해력	소득이해영역	.076	-.040	.123*	.057	.116*
	화폐관리이해영역	.046	.091	.028	.030	.026
	지출부채이해영역	.079	.003	.066	-.022	.039
	저축투자이해영역	-.049	.078	-.047	.004	-.007
수정된 R ²		0.55	.072	.209	.062	.152
상수		16.822***	2.671**	8.302***	10.127***	10.952***
F비		2.712***	3.312***	8.837***	2.954***	6.353***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금융의 비중이 높아진 현대 사회에서 대학생 소비자들의 금융이해력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여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교육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 소비자의 금융이해력과 금융소비자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대학생 소비자 대상의 금융소비자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기 금융소비자교육 경험 횟수는 약 2번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소비자교육 경험 장소로는 1/2이상이 공공교육기관으로 나타났다. 재테크의 관심도는 평균 3.8점으로 보통 이상의 관심도를 나타냈으며, 적금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둘째, 금융이해력 수준을 살펴본 결과, 평균 64.1점으로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에 비해 18.9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금융이해력은 소득 이해영역이 가장 높았으며, 화폐관리 이해영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금융소비자교육 실행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금융소비자교육 실행인지도가 14점 만점에 2.34점으로 매우 낮았으며, 온라인 금융소비자교육 실행인지도가 9점 만점에 1.54점, 오프라인 금융소비자교육 실행인지도가 5점 만점에 .81점으로 나타났다.

넷째, 금융소비자교육 요구도를 살펴본 결과, 금융소비자교육 내용 요구도는 5점 만점에 4.21점으로 매우 높은 요구도를 보였으며, 저축·신용관리가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증·신용카드가 가장 낮은 요구도를 보였다. 기관 요구도를 살펴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약 45%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으며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실습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책이 가장 낮은 요구도를 보였다. 참여의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10이상이 '무료만 참여하겠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금융교육의 시작 시기는 응답자의 9/10이상이 청소년기와 아동기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어려서부터 금융과 관련된 이해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매체가 필요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섯째, 금융이해력, 금융소비자교육 내용 요구도에 미치는 관련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금융이해력의 모든 영역에 나이가 정의 영향을 주어 나이가 많을수록 금융이해력의 모든 영역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금융소비자교육 내용

영역별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저축·신용관리는 보험관심, 아르바이트비의 비중이 높을수록 저축·신용관리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보증·신용카드는 펀드관심, 나이, 전공그룹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 지식은 보험관심, 펀드관심, 소득이해영역, 신용카드개수, 주식 관심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주식 관심을 제외하고 모두 정의 영향력을 보였다. 금융기관 및 세제에서는 적금관심, 펀드 관심이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소비자교육 내용 요구도에서는 펀드관심, 보험관심, 전공그룹, 소득이해영역, 신용카드 개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신용카드 개수가 많을수록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 대학생 소비자의 향후 사회진출과 관련한 금융소비자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소비자교육 인지도의 제고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교육의 홍보가 부족하거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해 금융소비자교육 실시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통한 금융소비자교육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금융소비자교육의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소비자교육 내용구성에 있어서 저축·신용관리, 금융에 관련된 지식 등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주식이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같은 내용이 일확천금을 위한 것이 아닌 경제적인 윤리 측면을 반영하여 건전한 투자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소비자교육 방법에 있어서 금융소비자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금융기관과 공공교육기관 등이 협력하여 교재 개발이나 다양한 금융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면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 단체, 정부 및 행정기관에서도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다양한 금융소비자교육의 방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금융소비자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 내에서 전공이나 교양 등의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금융소비자교육의 참여의사를 조사한 결과 유료와 무료를 포함한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90% 이상으로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법으로 금융소비자교육의 참여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교육매체 선호도가 높았던 현장실습과 영상매체를 통한 금융소비자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대상을

확대시키기 위해 각 금융소비자교육 기관들의 연계를 통한 파견교육 등의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융소비자교육의 적절한 시작 시기를 대부분 아동기와 청소년기라고 생각하는 반면, 실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금융소비자교육을 경험한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쉽고 재미있게 금융소비자교육을 접할 수 있는 방법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이 높게 나타나, 어려서부터 금융과 관련된 이해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이러한 교육을 위한 다양한 매체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소비자교육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 차별화, 개인 맞춤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학생 소비자 중 고학년의 졸업 및 취업을 대비하여 사회경제활동의 주체자가 되기 전 그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금융소비자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이 청소년 대상으로 한 문항이었고, 온라인상의 조사대상자 중 검색을 통해 금융이해력 측정 설문지를 응답한 경우가 있어 정확한 대학생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알 수 없었던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소비자교육 실행인지도 측정 시 실제 금융소비자교육에 참여여부와 가계 소득을 측정하지 못한 것과 청소년기 금융소비자교육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가 너무 적어 연구 결과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을 지역적으로 서울과 충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YMCA신용사회운동사무국, 성균관대 신용교육 교재 신용이머니(money)?, YMCA신용사회운동사무국.
- 국민은행연구소(2002), 20대의 소비/금융행태-현명한가, 국민은행.
- 국민은행연구소(2002), 한·미·일 20대 소비·금융 행태 보고서, 국민은행.
- 금융감독원(2003), 청소년 금융이해력(FQ: Financial Quotient)측정결과(2003),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2004), 우리나라 중학생의 금융이해력(Financial Quotient)측정결과(2004), 금융감독원.
- 금융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가정에서의 어린이 금융교육 실태보고서, 국민은행연구소(2003).
- 김근영·최숙희(2004), 청소년 경제교육의 현황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 김시월(2007), 청소년소비자의 온라인 신용소비자교육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일 청소년 소비

- 자의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3)**, 169-185.
- 김시월·조향숙(2010), 한·일 청소년 소비자의 신용교육 요구도 비교 연구: 신용지식 및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 FP학회지 **3(2)** p73-103.
- 김정호(2003), 청소년 금융교육의 방향과 내용, 청소년금융협의회.
- 김지검(2003),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제6차와 7차 교육과정 경제교과서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일(2004), 중등학교 경제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규태(2004), 금융개방화 시대를 대비한 한국경제교육의 바람직한 방향(금융교육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주(2004), 청소년 금융교육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철(2003), 금융교육 선진국의 현황 및 시사점, 선진국 금융교육 실태 및 시사점, 국민은행 연구원.
- 박현정(2004), 초등학교 아동의 금융소비자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영애(1988), 소비자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장환(2003), 학교 신용교육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고등학교 사회, 경제교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영수·도규태(2005), 고등학생의 금융 이해도와 바람직한 금융교육 방향 탐구, 중등교육연구.
- 윤지애(2005), 금융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경(2004), 평생교육으로서의 경제교육과 대학의 역할, 산업경제연구.
- 이지영(2005), 중학생 금융소비자교육 현황 및 교육 요구도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국은행연합회(2004), 신용불량정보 관리 현황, 전국은행연합회.
- 최숙희(2003),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제언, 삼성경제연구소.
- 최유경(2005), 온라인 금융소비자교육 웹사이트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진(2004),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내용의 구성과 분석-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향숙,이기춘(1997), 기혼여성의 재무관리교육에 대한 요구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53-69.
- ‘금융교육’과 ‘경제교육’, 내일신문, 2005.09.29.
- 돈 어떻게 써야하나, 매일경제신문, 2003.06.03.
- Kim, Jinhee(2000) *The effects of workplace financial education on personal finances and work outcomes*, Ph.D.,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Braunstein, S., & Welch, C. (2002), *Financial Literacy: An Overview of Practice, Research and Policy*. Federal Reserve Bulletin.
- Fox, L, & Hoffmann, J.(2004). Federal Reserve Personal Financial Education Initiatives. *Federal Reserve Bulletin*.
- Jacob, Katy, Sharyl, and Malcom Bush(2000), *Tools for Survival: An Analysis of Financial Literacy Programs for Lower-Income Families*, Woodstock Institute.
- FSA(2002) Personal Finance Teaching in School, *Consumer Research 11*.
- FSA(2006) Personal finance education in schools, *A UK benchmark study*.
- Jump\$start Coalition(2002), *National Standards in Personal Finance(2nd Edition)*, Jump\$start.
- <웹사이트>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국민은행 키드뱅크 <http://inf.kbstar.com>
 네이버 <http://www.naver.com>
 엠파스 <http://www.empas.com>
 미국 점프스타트 홈페이지 <http://www.jumpstart.org>
 미국 전국경제교육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ncee.org>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소비자 보호원 <http://www.cpb.or.kr>
 연세SIFE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yonseisife.cafe>
 영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a.gov.uk>
 전국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
 재정경제부 어린이 경제 홈페이지 <http://kids.mofe.go.kr>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http://www.fq.or.kr>

접수일 : 2011년 03월 09일
 심사일 : 2011년 05월 02일
 게재확정일 : 2011년 07월 28일